

연 기 감 지 기 와 방 사 능

—연기감지기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가정에서의 감지기 특히 연기 감지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 한 나라만 해도 약 4천만 개의 연기감지기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4천만 기 중에서 가정용이 3,500만 개 정도로 추산되는 것이다.

가정용은 SINGLE-STATION, 즉 콘트롤 패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지를 하면 그 자체에서 경보를 발하도록 되어 있다. 배터리 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69년 이래로 널리 보급이 되어 왔으나 가정용의 90퍼센트 정도는 이온화식이요 나머지가 광전식이다.(우리 협회 전시실에 미국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기감지기가 전시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기감지기라고 하면 이온화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점검시에도 이들을 많이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온화식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 우리들에게 거북칙한 느낌을 주는 일도 있다. 아메리슘 241은 주지하다시피 방사성 물질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해롭지 않을까?

NFPA 의 FIRE JOURNAL 지 1979년 11월호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다. 가정용 이온화식 감지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우리가 자연에서 끊임없이 받는 특히 SEA LEVEL 에서 받는 양의 1퍼센트의 1/10 개지는 1/1,000 다지 많아서 가정엔 70여년 간 남아 두고 우리가 이에 노출된다 하도 X선이 한번 찍는 것과 같은 정도의 조사량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점검시에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